

SOCIETY

2025년 4월 4일 금요일

“尹 탄핵심판 직관”...방청 경쟁 ‘역대 최다’

북구 ‘사랑의 밥차’ 운영 시작 결식 우려 취약계층 점심 제공

광주 북구는 결식 우려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2025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직접 찾아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지역의 민간 봉사단체 10개소와 동 자원봉사캠프 회원이 차량 운행부터 음식 준비, 배식, 주변 정리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된다.

북구는 오차주공1단지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올해 ‘사랑의 밥차’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 결식 우려 취약계층 400명에게 육개장을 제공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낸 지 오래돼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일이 잦았는데, 오랜만에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다”고 전했다.

상반기 사랑의 밥차는 오는 6월25일까지 수요일마다 운영된다. 오차주공1단지, 우산주공3단지, 일곡동 일원, 각화주공, 두암주공2단지, 양산호수공원 등 6곳의 배식 장소 중 매주 1곳에 방문해 회당 400인분의 점심식사를 총 13회 제공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현재 흡피 접속대기자 9만명 20석 제한...경쟁률 4800대 1

시민단체, 5·18 광주 생중계 시·도 교육청, TV 시청 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할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9만명을 넘어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해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날로부터 38일 만인 4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 1일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 통지하면서 방청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 방청석 104석 중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일반인 방청 신청이 이뤄진 4일 오후 4시부터 수만명의 접속자 수가 물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현재 홈페이지 접속 대기자가 9만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인 방청석이 20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4800대 1 수준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항교 유림단체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방청석 경쟁률 최고 기록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에 그쳤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769대 1이었다.

방청에 선정된 신청자는 헌법재판관이 이 주문과 의견을 읽는 대심판정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날 오후 1시 기준 현재 홈페이지 접속 대기자가 9만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인 방청석이 20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4800대 1 수준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되던·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탄핵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현장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한다.

광주비상행동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환영회를, 기각될 경우 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생들도 역사적 순간을 학교에서 생중계로 지켜본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등은

선고일을 맞아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각급 학교에 “TV 시청”을 통한 계기수업을 권고했다.

교육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이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순간도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시민들은 5·18민주광장을 찾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다.

정수혁씨(39)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온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인들과 함께 지켜보려 한다”며 “헌재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gwangnam.co.kr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스포츠경영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 국제학과

CHODANG UNIVERSITY 초당대학교

‘尹 대통령 기념품’ 가치 하락 우려에 판매 리시

탄핵 선고일 확정되자 중고 사이트에 거래 게시글
기념시계·우편·책 등 2000원~50만원대 물건 다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윤 대통령 기념품을 처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됨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하루 평균 3~4개씩 올라오던 판매 글이 지난 2일부터 10여 개씩 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검색어에 윤석열을 입력하면 시계, 우편, 책 등을 판매하는 다수의 게시글이 확인된다. 시세는 2000원에서 50만원대로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지난 2일 ‘새 제품이고 박스에 품질보증서도 있다. 금장 불황과 윤 대통령 서명이 있는 남성용 손목시계를 선물 포장된 상태로 최정가 35만원에 판매한다’란 글을 올렸다. 이 판매 글은 조회수 2100회를 돌파했다.

윤 대통령 남녀 시계를 24만원에 판매하는 글에는 ‘윤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며 케이스와 보증서 모두 있는 미사용 새 제품으로 소장품·수집품·선물용으로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곧바로 올려진 제품은 현재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다른 상품과 묶어서 파는 글도 등장했다. 당근마켓에서는 ‘윤 대통령 우표와 독도 크리스마스필 팔아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회수 1583회를 기록한 이 글에는 ‘우표는 죄가 없어요’, ‘헛소리하면 차단·신고합니다’ 등 문구와 함께 대통령 우표, 2006년에 발행한 독도 크리스마스필 1장을 3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22년 5월10일부터 판매한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기념우표 1종 300만장, 소형시트 1종 50만장, 기념우표첩 1종 2만부)의 가격은 기념우표와 소형시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 남성용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글이 게재됐다.

430원, 기념우표첩 2만7000원이다.

‘그래도, 윤석열’이란 제목의 책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책을 펴낸 ‘당신들의 맨스 맨스’ 등 2권은 1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 블로그에는 윤 대통령 취임 우표점 사진을 올리며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현 분위기를 안타까워했다.

정모씨(33)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 기념시계 시세가 급락해 5만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올라갔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탄핵 선고 이후 보관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처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제주 교육청, 책 읽으며 서로 역사 배운다 11일까지 본청 북카페서 ‘제주 4·3 도서 전시회’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책을 읽으며 서로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주 4·3 사건 77주년을 맞아 3일부터 11일까지 본청 북카페에서 4·3 사건 관련 도서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서 전시 행사는 지난 3월 ‘광주 실천교사모임’ 단체에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한 ‘도서 교류’ 안을 받

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및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해 4·3 평화·인권 계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기증한 5·18 관련 도서 20권을 오는 5월 제주교육청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제주 4·3 사건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수 기자 joinsu@